

“사회간접자본 대전환 전북 경제지도 대변환”

‘도지사 출마’ 김윤덕 의원
전주-완주-동대전 신규
준고속철 신설 등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 갑) 의원이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OC(사회간접자본) 대전환과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해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전주-완주-동대전 신규 준고속철 신설 ▲군산-홍성-시흥 기존 서해안선과 이를 보완한 군산-화성시-항남-수원-익산-서원-운행 추진 ▲군산-아산-장항선을 활용한 강남권 진입노선 신설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군산-새만금으로 이어지는 산업선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고속도로망과 관련해 ▲전주-무주-대구 구간 직선화 ▲전주-세종 간 고속도로 신설 ▲새만금(부안)-지리산(남원) 고속도로 신설 등을 정부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인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법과 함께,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와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 의원이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OC(사회간접자본) 대전환과 광개토 협력사업을 통해 전북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산-군산을 잇는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전북광역 RRT 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순환 RRT 구축’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광개토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산-서천 금강하류권 협력사업 추진, ▲전북 무주-충북 영동-경북 김천 ‘三北道 지역회해’ 협력사업 추진, ▲남원-전남 곡성, 경남 하동·구례, 함양 등 지리산권 협력사업 추진, ▲고창-정읍-순창-전남 장성·담양 등 1차산업과 관광 기반

구축사업 추진 등이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의 철도, 고속도로 신규 노선 개발과 RRT 구축을 통해 물류의 중심과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전북 대전환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8조, 9조 국가예산 확보 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라며 “전북의 시·군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 시·군과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14개 시·군을 23개 시·군으로 확장하는 광개토 협력사업으로 전북의 경제 지도를 확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애물단지 새만금을 황금의 땅으로”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새만금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임기 즉시 해수유통방안 확정
조력발전소 건설 등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4일 제2호 공약인 ‘대한민국 그린뉴딜1번지 새만금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을 통해 애물단지 새만금을 황금의 땅으로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의 대전환을 통해 새만금을 기업투자 최적지로 만들고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식품 수출과 관광의 새 시대를 열어젖힌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그린뉴딜 1번지 새만금 조성을 위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및 투자 최적지 해수유통방안 확정 ▲새만금 조력발전소 건설 ▲수출주도 농식품기반 구축, ▲서해안관광시대 개막 ▲민관커버넌스를 통한 새만금사업 대전환 등 6대 비전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우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구로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을 통해 애물단지 새만금을 황금의 땅으로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지정,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지사 취임 즉시 해수유통 확대 방안을 만들고 늘어난 해수유통량을 활용해 500메가와트(MW)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 새만금 농생명단지에서 수출경쟁력 높은 농식품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6차산업의 기지로 만들고, 익산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농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 의원은 새만금에 새만금영화도시를 조성하고, K-POP 공연장을 건립하며, 관광레저용지에는 해양휴양

레저 시설을 조성해 관광을 유도하고, 말산업특구를 설치해 승마경마공원 등 유치해 서해안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민관커버넌스를 구축해 ‘도민이 원하는 새만금’을 만들고, 도민들에게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은 지난 1991년부터 30년간 전북 최대의 현안이었지만, 도대체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무엇이 틀어설지 애만 풀이는 시간이 지속돼 왔다”면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대안으로 애물단지 새만금을 황금의 땅으로 바꿔놓겠다”고 역설했다. /유호상 기자

“이준석 발언, 문제해결은 커녕 갈등만 조장”

이병도 의원, 전장연 지하철 탐승투쟁 관련
“대국민 사과·장애인 이동권 보장 적극 나서라”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 3,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탐승투쟁과 관련한 국민취약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그간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져 온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투쟁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집권을 앞둔 여당 대표로서 문제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서



강화시키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성명서를 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도 의원은 현재 전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장애인들이 집박을

나서는 순간 비장애인 중심 교통시설들로 인해 장애인들은 불편함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에게는 현재의 비장애인 위주의 현재의 교통시설이 넘사벽으로, 이에 이동할 수 없게 하거나,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된 위험시설일뿐이며, 이동불편은 사회참여 저하로 직결돼 장애인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은 비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과 똑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의 장애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해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덧붙여 “이준석 대표의 대국민 사과와 정치권이 합심해 조속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라북도 청년 출마자 간담회를 지난 3일 연 가운데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청년 출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청년 출마자들은 청년정책과 예산참여 등 다양한 공동공약을 제안했다.

“청년 권리 보장” 공동정책, 청년들의 손으로

민주 소속 청년 지방선거 출마자들
정책·예산참여 등 공동공약 제안

지방자치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출마자들이 청년들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전라북도 청년 출마자 간담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공동공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의원, 청년출마자, 청년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동공약으로 제안된 주요 정책은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기본금융(기본대출, 기본저축), ▲청년 마음 건강복지, ▲청년정책과 예산참여 등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만19~29세까지 청년들에게 지역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 기본금융’은 청년들에게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언제든지 자기가 은행 금리 수준으로 빌리

고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음 건강복지’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정책과 예산참여’는 청년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를 위한 예산 편성과정에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역량 있는 신인이려면 나이 경험 경쟁력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추천하는 혁신 공천을 실현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과 여성의 기회 확대,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좋은 정치의 씨앗 모시겠습니다”

민중 도당, 2030 정치신인 발굴 지원 후보자 추가 모집
김성주 도당위원장 “새로운 목소리 내는 새 인물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2030세대 정치신인 발굴을 위한 지방선거 후보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당은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공직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 후보자 접수와 검증을 진행해왔다.

기존 정당에서 활동해온 등록 후보자 외에 정당의 내부 규정과 일정예 잘 모르는 신인들에게 출마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치인 특히 정당 바깥에 있는 청년, 여성, 혁신 활동가에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추가 공모를 마련했

다. 추가 공모는 6일 공관위 회의를 통해 접수 연장 여부를 다시 공지할 계획이다.

1차 추가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전북도당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은 역량 있는 후보라면 나이, 경험, 경쟁력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추천하는 혁신공천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번 추가 공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교체와 정당쇄신의 발판이 될 것이다. 참신하고 유능한 청년·여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 등록 완료



서윤근 후보가 4일 전주시장 후보로 정의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등록을 완료했다.

정의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 당권을 가지는 진성당원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후보선출은 100% 당원투표로 실시된다. 정의당 전 전북도당의 공직선거 후보등록은 오늘(4일)부터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온라인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서윤근 후보는 이번 전주시장 선거에 “북유럽식 복지도시 전주”와 “기후위기시대 녹색전환도시 전주”를 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대한법률부지를 전주시 매입을 통한 공공개발로 영화영상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대중교통 무상 추진, 청년들에게 취업준비수당과 전주지역대학 입학 시 지역인재 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훈회관 이전 추진”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전주시보훈회관을 이전하고 전주시보훈공원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안착시켜 호국 보훈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일 조 예비후보는 부철한 시명칭과 희생정신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우선,



전주시보훈회관을 이전해 협의회 활동의 폭을 넓히고 주차면수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자 현재 인근 지역보다 낮은 보훈수당(월 6만원)을 100%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잘 섬겨야만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헌신하는 시민 의식이 형성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준공을 앞둔 보훈공원을 역사교육의 장이자 휴식 공간 등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소된 월남전 파병 사망자에 대한 위령제를 올해부터는 실행해 달라’는 협의회의 요구 역시 적극 검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훈단체협의회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복지 지원책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